

문화광장



이한영 제주해녀문화보존회장·교육학 박사

십여 년 전 필자는 홀로 사시는 고령 해녀의 맥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마당 입구부터 방안 구석구석까지 바다에서 떠내려 왔을직한 스티로폼, 그물, 나일론줄, 부표, 대나무, 유리병, 찌그리진 바가지 그리고 언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는 낡은 고무옷, 오래되어 식은 오리발, 금이 간 수경 등 집안이 온통 잡종사니 물건들로 가득 차서 생활하기가 힘들어 보일 정도였다.
이제는 몸이 불편해 물질을 밟아도 못 하시는 해녀분에게 '이 물건들은 다 무엇이나'고 여쭙니, '스티로폼과 그물과 나일론줄은 태왁을 만

저장강박증 vs 새해맞이 대청소

들 재료이고 대나무와 각종 잡종사니는 텃밭을 일굴 때 요긴하며 고무 옷과 오리발과 물안경은 조금만 손보면 아직 쓸만하다'고 하신다. 당시 필자는 막연히 은퇴한 해녀의 물질에 대한 그리움이나 제주의 조남(절약)정신 줌으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다.
하지만 최근 자신의 집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잡종사니를 모아 쌓아두는 사람들이 늘어, 이로 인한 이웃과의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비위생적이기도 하고 자칫 겨울철 대형화재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증상을 현대 정신의학에서는 강박장애의 일종인 저장강박증이라 하는데, 과거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희소 질환이었지만 지금은 세계 인구의 5%가 이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어떤 물건이든 버리지 못하고 저장해 두는 저장강박증 환자들은 지금

당장 필요가 없는데도 나중에 필요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모아놓거나 이유 없이 버리지 않고 방치해 둔다. 최근에는 저장강박증이 디지털 영역까지 확장돼 '디지털저장강박증'이라는 것도 등장했는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불필요한 자료와 사진을 지우지 못해 저장공간이 다 찰 때까지 모아두는 신종 저장강박증을 말한다.
미국 팝아트 작가 앤디 워홀도 1975년에 출간된 '앤디 워홀의 철학'에서 "나는 원치 않는 물건이라도 그걸 버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저장강박증에 대해 고백했다. 그는 1974년부터 타임캡슐이라는 이름으로 610개의 상자를 각종 잡종사니로 채웠는데 훗날 미술관 직원들이 타임캡슐의 내용물을 분류해 보니 예술품과 책은 물론이고 입던 옷과 예술품과 책 등 그리고 바삭 말라버린 피자 조각도 들어있었다고 한다.

수집가와 저장강박증 환자는 무엇인가를 모은다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수집가는 수집품을 모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해 보여주려는 욕구가 있는 반면 저장강박증 환자들은 정리는 커녕 버리지 못해 방치해 두는 점이 크게 다르다. 이러한 저장강박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 그리고 저장할 것과 버릴 것을 구분하는 바른 가치평가가 필요하며, 물건이나 자료에 대한 과도한 애착이나 집착은 금물이다.
바쁘다는 핑계로 오랫동안 어지럽혀진 채 방치된 집과 사무실이 있다면 그리고 스마트폰과 컴퓨터 바탕화면에 파일이 가득 차 있다면 더는 미루지 말고 새해맞이 대청소를 해 보면 어떨까? 쓸고 닦고 치우고 비우면 그곳에는 언제나 새로운 공간과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다!

사설

계약서 없다고 협박하는 '코미디 행정'

원희룡 제주도정의 원칙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이 이래도 되나" 싶을 때가 한 두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드립타워를 비롯해 영리병원, 그리고 오라관단지 등에 휘두른 원 도정의 행태는 한마디로 무소불위나 다를 없습니니다. 요즘은 제주 용암수 국내 판매에 들어간 오리는 기업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용암수 공급 중단'이란 카드까지 흘리면서 재차 경고를 보냈습니다.
원 지사는 오리온의 용암수 국내 판매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원 지사는 지난 3일 도청 기자 간담회에서 "이미 공장을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생산을 허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물 공급한다는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공식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국내 공급 관련)묵시적인 언질을 준 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대응을 보면 코미디를 방불케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잘못했다고 보는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행정이 '언질'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제주도가 문제삼는 것은 공공자원인 용암수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문제는 제주도가 그렇게 중요한 공공자원을 허술하게 짚이 없게 관리해 왔다는 점입니다. 오리온이 용암수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발표하지 2년 반이 넘었습니다. 이제와서 공장 다 짓고 국내 판매한다고 하니까 제동을 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행정이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물 공급을 끊겠다고 협박한다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결국 오리온을 두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제주도가 용암수를 제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행정이 그레놓고 만만하게 기업이라고 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러니 기업이 제주에 안 오는 것입니다.

잇단 악재 불구 해법 안보이는 개발공사

국민 생수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도가 개발공사가 대내외 악재에 직면했습니다. 지난해 말 공사 창립 이후 첫 파업에 돌입하면서 공장이 멈춘데다, 삼다수 생산을 늘리기 위해 추진한 증축 계획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삼다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내년 가동을 목표로 L6라인 신축을 추진했지만 계획수정이 불가피합니다.
법제처가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지정 확대'와 관련 공기업인 개발공사를 예외대상으로 뒤흔어 안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상황이 꼬였습니다. 기존 생산라인을 폐쇄하고 신설하려면 계획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특히 L6라인 설치를 염두에 두고 1998년 처음 조성된 L1라인은 지난 해 해체된 상태입니다. 당장 4개 라인으로만 삼다수를 생산해야 하는 실정에서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지정은 지난해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의 수량과 수질보전을 위해 제주도가 취한 조치입니다. 갈수록 고갈 우려에다 오염원 노출 등으로 위협받는 지하수를 보호하는데 공기업도 예외가 없음을 인정할 것입니다. 개발공사도 제주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악재가 꼬리를 무는데도 불구 당분간 해결책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개발공사는 오경수 전 사장이 노조 파업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경영진마저 공백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노사간 대화는 평행선을 달리면서 파업 장기화에 따른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부진에다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공용 감귤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개발공사 노사는 물론 제주도도 지금 상황이 엄중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고 경영 정상화를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열린마당

공무원에게 공정이란 무엇일까?



박대진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며칠 전 KBS에서 발표한 신년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이나'는 질문에 응답자의 20.2%가 '공정'이라고 답해 1위를 기록했다. 대통령의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도 '경제'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공정'이었다. '공정'이라는 가치가 현재 우리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무원에게 공정이란 어떤 의미일까? 공정(公正)의 사전적 정의는 '공평하고 올바름'이다.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서는 '공무원은 주된 직책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며 공정을 공무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에게 공정이란 '다수가 공감하는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고객인 시민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먼저 방문해서 기다리고 있지만 B라는 사람이 자신의 친구라는 이유로 먼저 민원을 처리해준 다거나 지인이 재직하고 있는 특정업체에 입감을 몰아준다면 분명 공정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다만 민원에서 응급환자를 일반 환자보다 먼저 치료하는 것이나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경우처럼 긴급을 요하거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려면 다수가 공감하는 올바른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고객인 시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며, 정책 추진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로써 공정한 업무수행의 기틀이 마련된다.
새해에는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 더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청렴한 공직문화가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 본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도의회 행조특위 활동 막바지

17차 회의... 증인 25명 채택
○...도내 22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행정조사가 막바지에 돌입.
오는 13일 마지막 증인 신문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행조특위는 6일 제17차 회의를 개최하고 마지막 증인 신문 조사활동을 위한 증인 25명을 채택.
이상봉 행조특위 위원장은 "그동안 답변이 미진했거나 심층적인 자료 확인이 필요한 것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선거 연영이 만 19세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아진 것에 대해 "학생들이 '교복 입은 시민'으로 존중 받고, 삶의 주체로 바로 서야 한다"고 강조.
이 교육감은 6일 제주도교육청

주간기획조정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으로 오는 4월 국회의원선거부터 33 학생 일부가 투표권을 행사하게 될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교사와 학부모, 도민들의 학생권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교육, 연수에서 인식 전환이 이뤄지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
7개 전통시장 현장방문
○...양윤경 서귀포시장이 올해 현장방문 첫걸음으로 6일부터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새해인사를 나누며 애로사항도 청취.
이 날 모슬포중앙시장과 대정오일시장을 찾은 양 시장은 이날 24일까지 표선, 중문, 고성, 매일올레시장, 향토오일시장 등 7개 전통시장을 차례로 방문 예정.
시 관계자는 "올해 시정운영 기조를 시민중심, 현장중심, 민생중심으로 민생경제 활력화에 최우선을 두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함께 헤쳐나갈 것을 약속하는 취지"라고 설명.
문미숙기자

부고
최봉환 조부 사병 최공 순권(요셉·국가유공자·해병대 4기·향년 95세)
가서 2020년 1월 5일 19시 35분에 숙환으로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1월 7일(화)
▶발인일시: 2020년 1월 8일(수)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제4분향실
▶장례미사: 정년주성당(의도동) 오전 10시
▶장 자: 양지공원
손자 최봉환(미카엘) 손부 최은정(미카엘라)
딸 최성희(모리카) 사위 고창근(쿠카)
영희(소피아) 전태복
옥희(안젤라) 박상은(안젤로)
윤심(해바) 김동기(오르넬리노)
외손자 고은상(세바스티안)
외손녀 전정민(레나)
박세민(한리코)
박세익(미카엘)
김기람(키리아네)
김우람(키리아네)
외손녀 최지웅(요한) 외손녀 고은애(카리나스)
조건장
\* 연락처 : 최봉환 010-6666-0862
고창근 010-4696-5544
부민장례식장 742-5000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 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주)전기자동차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물
미국식품의약국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3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술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건계분판매
친환경 및 HACCP인증 농장
\*발효기(콤부스트)로 열처리 발효시켜 원전 건조된 친환경 계분을 판매합니다.
\*펠릿으로도 가능합니다.
- 제주 전지역 배송가능 -
제주초록영농조합법인
문의 : 010-3693-2000, 010-2696-9876

모든품종 감귤(묘)분양
중지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유리실생 \*하례조생
\*미니향·레몬·영굴
\*한라봉 \*히로시마7호
\*궁천변이지
\*천전(가와대) 온주(천지향 8년생)
\*일남일호
\* 묘목 접수 판매(1년생 묘목 접수만 취급)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귀증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묘목
\* 유리실생 ..... 1,2,3년생
\* 레드향 (무독) ..... 1,2,3년생
\* 천혜향 (무독) ..... 2,3년생
\* 궁천 ..... 9년생, 1,2,5년생
\* 궁천 변이지 ..... 1,2년생
\* 하례조생 ..... 1,2년생
\* 일남희 (제일 빠른 극조생) 6년생
\* 한라봉 ..... 5,6년생
\*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육묘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중지업등록번호 제주 18-2003-20-08
010-2699-2355